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래기행

(1) 칠장산 칠장사

글·사진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 최대의 화두가 되었다. 환경의 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위기는 자연을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인간 중심적 사고의 필연적 귀결이다. 따라서 '생태'라는 말은 이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쓰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생태란, '생명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생태계는 '생명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세계'를 말한다. 인간도 그 생명 세계의 한 구성원이다. 사찰생태란 수행자들을 포함하여 사찰과 사찰 주변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많은 생명체들의 삶의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이 기획은 '사찰생태연구소'가 10년을 기억하고 원력을 세운 '전국 108사찰 생래기행'을 불자들이 공유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편집자



◊ '칠장산 칠장사' 이호신 작, 한지에 수묵담채(60×91cm), 2002년.



◊ 숲거리의 전나무. 숲거리는 칠장사의 기운을 보호하는 풍수적 숲이다.



◊ 홀아비꽃대. 전국에 분포하는 여러해살이 꽃으로, 사찰 조경화로 길러도 좋을 것이다.

숲이 사라지면 절도...

유도 그런 공산 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산은 죽은 사람이 가꾼다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중산 기술에서 내려다보는 칠장사의 숲은 잡목과 조릿대로 뒤범벅이 되어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동선(動線)을 벗어난 일주문, 턱없이 넓게 뒤은 주차장, 담장을 허물고 대웅전 마당까지 지는 스텝으로 낸 시멘트길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옛 속담에 세숫물을 깨끗게 쓰면 쓴 만큼의 물을 저승에 가서 다 마셔야 한다고 했다. 무계획한 불사로 정재를 낭비하면 저승에 가서 그 돈을 다 물어야 할 것이다. 철학이 있든 불사가 어렵다. 그리고, 대웅전 마당의 잔디와 판석, 불사

의 나한님이 파종하고 있다. 나한전을 우산처럼 받쳐주고 있는 노송은 고려 말 나옹화상이 심었다는 전설이 있으나, 수령은 3백년 안팎으로 추정된다. 칠장사에서는 법랍이 가장 오랜 노장나무이다. 근래들어 노쇠가 역력해서 얼마 전부터 영양제를 맞고 있다. 따로 공간묘판을 만들어 후계목을 번식시켜 노송의 고사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 나무도 태교를 한다
나한전 옆 은행나무를 끼고 칠장산으로 등산로가 나 있다. 초입 숲 그늘에 피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희사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피나무는 양귀비과에 속하는 봄꽃으로, 일명 노랑매미꽃이라고도 하며, 줄기를 자르면 붉은색 즙이 나온다 하여 피나무이라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적절히 손을 봐 줘야 할 때다. 조릿대군락 사이로 난 등산로를 지나면 상운암 옛 터이다. 암자터 주변으로 귀룽나무를 비롯해 굴참나무 등의 높은 활엽수들이 장대밭을 이루고 있다. 1백년은 족히 족었을 큰 밤나무도 한 그루 자리하고 있다. 능선에 이르면 칠장산과 칠현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갈라진다. 칠장산과 칠현산의 주된 수종은 참나무류와 서어나무 등 활엽수들이다. 한때 전성시대를 구가했던 소나무들은 산적대기와 능선으로 쫓겨올라와 있다. 그나마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숲방울들도 눈감사랑보다 작고, 후계목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칠장산의 소나무시대는 끝이 날 것이다.

요하다. 칠장사의 경우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정밀검사도 필요할 것이다. 어디선가 피꼬리 한 쌍이 날아와 태교(胎敎) 노래를 불러준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후손을 위해 태교를 한다. 나무들도 예외는 아니다. 보다 현실한 후손을 위해 청아한 바람소리와 맑은 물소리와 아름다운 풀벌레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향기로운 꽃내음으로 태교를 한다. 숲속에 홀아비꽃대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자태의 꽃 모양을 보 여준다. 홀아비꽃대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여러해살이 봄꽃이다. 포기나 누기나 씨앗으로도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경내로 옮겨심으면 썩 좋은 조경화가 될 것이다. 원추리와 동굴레도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상운암 주변 귀룽·굴참나무 장대밭 홀아비꽃대·원추리·동굴레 등 군락

때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부도, 시스템이 불안한 수세식 해우소, 폐지재 집동사나에 가려져버린 대웅전 꽃창살 빛문 등도 눈에 밟힌다. 주엽나무와 은행나무를 끼고 비전에 오르면 해소국사 비각이 있다. 해소국사는 안성 죽산 출신의 고려시대 고승으로 칠장사의 중흥조이다. 비각에서 저만큼 떨어진 자리에 나한전이 있다. 폐사된 산내 암자에서 모셔온 입골분

고 이름 붙였다. 칠장산 지역에서는 예기풍 풀꽃과 함께 이른 봄부터 피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봄꽃이다. 등산로를 따라 중턱에 오르면 조릿대군락이 넓게 펼쳐져 있다. 조릿대는 산에 많이 나는, 키 작은 벼과(Graminae)의 대나무이다. 조릿대는 땅속뿌리(地下莖)를 갖고 밀생하기 때문에 산사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나무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조릿대가 넓게 퍼지

절숲 잡목 무성·300년 노송 영양제 의존 대웅전까지 뻗친 시멘트길도 눈에 밟혀

능선 아래로 드넓은 안성 C.C 골프장이 보인다. 최근 '열도살판' 등과 같은 고독성 농약이 골프장 잔디에 잔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골프장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농약은 빗물에 씻겨 아래로 내려가지만, 일부는 바람을 타고 능선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생명들이 체내에 축적된 상태에서 짝짓기 등을 통해 다른 개체에 독성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

특히 원추리가 능선까지 올라와 군락을 이루는 예는 그리 흔치 않기 때문에 칠장산과 칠현산의 대표적인 여름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원추리는 베고른 시절 한때 사하촌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 구황식물이기도 했다. 문헌에 따르면, 해소국사가 칠장사를 중창하기 전까지는 절 이름이 '칠장사(長長寺)'로 나와 있다. 아마 산에 울나무[漆]가 많아서 그런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 나한전 소나무. 고려말 나옹화상이 심었다는 전설을 간직한 나무로, 칠장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풍산한식동기기와 가격을 대폭 내렸습니다

평당 54 만원에서

42

만원으로 대폭 인하
(100평 기준, 시공비 포함)

· 압기와 : 3,580 → 2,380원 / 장 (33%인하)

세계 최고 품질의 풍산한식동기화를
보다 만족스런 가격에 경험하십시오.

풍산한식동기기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 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 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풍산한식동기기는 이런 곳에 시공하면 좋습니다.

- 새천년 비바람과 추위로 기와가 날아가거나 동파가 심한 곳
- 건물 지반이나 골조가 약해 지붕의 하중을 줄여야 하는 곳
- 한국의 전통미와 실용성이 필요한 건물
-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하는 건물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부품 하나 하나마다 새겨진 풍산한식동기기와 마크를 확인하십시오.

풍산한식동기기는 당사 지정 전문시공사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 풍산지정 전문시공사
 - 보광건축(서울): 011-204-6238
 - 성원건축(서울): 011-445-7811
 - 세주반금(청주): 011-401-5312

문의 : (주)풍산 건축자재 담당 02-3406-5114, 011-898-9720

주식회사 풍산
www.poongsan.co.kr